

## 천공분지에 기저한 도서형 피부피판술을 이용한 천골부 욕창과 복벽 결손의 재건

김종진\*, 문지현, 이내호, 양경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손상 환자의 진료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사망환자가 줄어들면서 사지마비를 동반한 채 생존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외상에 의한 척추가 손상된 환자는 장기간 병석에 누워 있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천골부 압박궤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복벽결손은 선천적으로는 제대 탈출이나 복벽 구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후천적으로는 외상, 종양의 절제, 화상 반흔의 제거, 복부 수술후의 혈종, 염증에 의한 조직의 괴사, 방사선 치료후에 발생하는 조직의 괴사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이들의 재건 방법은 1차적 단순봉합, 피부 이식, 국소피부피판술, 각종 근피피판술, 근막이식술, 인공 mesh의 이용, 조직확장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상기의 방법은 제각기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써 본 술식을 시행하고자 한다.

천공분지에 기저를 둔 도서형 피판의 장점으로서는 천공분지 사이의 문합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한 개의 천공분지만 포함시켜도 충분한 크기의 피부를 포함하는 피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여부의 1차 봉합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근피판술에 비해 수술시간이 짧고 수술시 출혈이 적으며 회전피판이나 전진피판술보다 회전 반경이 크고 보다 안전하고 풍부한 혈행공급을 받는다. 또한 천공분지를 이용한 도서형피부피판은 종래의 근피판과는 다르게 근육과 피부를 적절하게 이용하므로써 근육이 있는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저자는 둔부와 복벽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천공분지를 이용한 도서형 피부피판을 이용함으로써 피판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적당한 부피를 가지는 피판이 요구되는 창상에 피부의 양을 알맞게 조절하여 적절한 재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998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이러한 천공분지를 이용하여 총 20례의 다양한 천골부 압박 궤양과 총 5례의 복벽결손을 합병증이나 피판의 손실 없이 치료할 수 있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